

간협-치협-한의협, 커뮤니티케어 성공 위한 공동성명

다학제간 협력 필수 ... 보건의료 직역별 단독법 제정해야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 토론회

주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관 간호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다학제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간호법 등 각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응)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케어)을 환영하며,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조해 더 나은 의료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 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의사, 치과, 간호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간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노인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

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 현실화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문간호사에 의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이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종환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커뮤

국제간호협의회, 대한간호협회에 위로 서한

강원도 산불 피해 위로 ... 세계 간호사 한미음으로 격려



ICN 로고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위로 서한을 대한간호협회에 보내왔다.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ICN은 대한간호협회의 한국의 간호사들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을 지지한다"면서 "세계의 모든 간호사들의 마음이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들은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면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돌봄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열정과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견고한 연대의식이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ICN의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답장을 보

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임직원들은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간호사들과 함께 의료지원, 건강관리 및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국민건강 수호자인 간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다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ICN의 따뜻한 위로의 말과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 chung@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취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새 원장으로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4월 22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윤성 선임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병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의학교육평가위원 이사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출제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이사를 지내는 등 국시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폭넓은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기자 jilee@

취임식에서 이윤성 선임 원장은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화된 평가체계 구축 및 질 좋은 문항을 확대하는 등 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해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 합동간담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간담회를 4월 18일 개최했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선도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련부서와 건보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고, 보건의료·주거·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제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8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지역을 관할하는 건보공단 지사에 선도사업 지원반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복지부, 건보공단,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 마련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대상자 유형과 발췌기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8개 지자체는 지난 4월 초 선정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2년 간 실시된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곳이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은 △경기 화성시 1곳이다.

주혜진 기자 hjjo@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만든다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서울시 강남구 국립재활원 내 건립부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4월 24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건립하는 장애인 종합건강검진시설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검진이 될 수 있도록 초음파실, 자기공명영상실, 컴퓨터 단층촬영실, 내시경실 등의 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과 암 검진 서비스 제공, 특화된 검진 항목을 개발·보급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간호사신문 (02) 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 2260-2579	
koreanurse.or.kr nursenews.co.kr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당자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p>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p>	<p>www.ganhohak.co.kr</p>
---	----------------------------------

